

2008년 11월 17일

학생 여러분께

학생담당이사·부학장
아사시마 마코토(浅島 誠)

대마 등 금지약물의 남용에 대하여

요즘 대학생에 의한 대마 등 금지약물 남용이 이어져, 사회에 혼란과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신문과 텔레비전 등의 보도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.

도쿄대 학생에 한해서는 이와 같은 일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만,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.

금지약물의 소지, 사용, 판매 등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.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.

본교 학생 여러분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고, 스스로의 장래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치닫지 않도록 평소부터 마음을 다잡아서 행동해 주십시오.

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.

본교에서는 그러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,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.